

국내 벤처기업의 네트워킹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Entrepreneurial networking and performance of new high-tech ventures in Korea

박 상 문* · 배 중 태**

Abstract

Recent entrepreneurship research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ial behaviors, entrepreneurs activities. This study focused entrepreneurial behaviors, especially entrepreneurial networking for using external resources which are critical to su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networking and performance using data from 55 new high-tech ventures in Korea. We tested hypothese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networking are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new high-tech ventures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entrepreneurial networking are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new high-tech ventures, (2)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networking between high and low-performance firms, (3) some factors are related to the entrepreneurial networking.

Finally, some manageri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과정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

I. 서 론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에서의 벤처기업들은 인력, 자금 등 자원 규모에 있어서는 기존기업들보다 취약하지만 기존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높은 고용 증가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창업인이든 조직 내부에 있는 임직원이든 어떤 개인들이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Stevenson et al., 1994).

기업가정신은 제품혁신과 새로운 시장개척, 고용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에게는 쇠퇴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신생기업에게는 이상실현의 바탕으로서 작용한다(Lumpkin and Dess, 1996).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소수의 핵심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Bollinger et al., 1983),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둔 회사(Cooper, 1971)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컴퓨터, 전자, 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품기술이 성장기,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입기나 제품으로는 수입 대체 분야에 진출하는 특성을 보였다. 최근들어 정보통신분야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특히 국내 첨단산업에서의 벤처기업의 성과영향요인과 벤처기업의 부족한 내적자원 극복하기 위한 외부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와의 관계, 네트워크 활동 영향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성과 영향요인과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과 이들 영향요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자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벤처기업가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 1 네트워크 활동과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인, 산업 및 환경, 제품, 조직특성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분석단위를 이용하고 창업인의 개인특성 중심에서 기업의 조직적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다양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Chandler & Hanks, 1994; Covin & Slevin, 1991; Zahra, 1993; Lumpkin & Dess, 1996).

기업가정신을 통제 가능한 자원에 관계없이 끊임없는 기회의 추구라는 특성으로 볼 때 포착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자원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자원의 활용은 벤처기업의 중요한 행태특성이며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업초기 창업인 개인과 벤처기업의 네트워크가 동일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원천끼리의 상호연결성이나 공동의 목표의 존재와 같은 특성을 가정하지 않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외부원천으로부터의 자원획득 기능과 이러한 관계를 개발, 관리하기 위한 행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Zhoa & Aram, 1995).

벤처기업은 성장하면서 기회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부족, 자원의 축적으로 인한 유연성의 상실의 두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이 직접 통제하고 있지 않은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Jarillo, 1989) 기회에 맞추어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Stevenson & Gumpert, 1985).

벤처기업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위험감소(MacMillan, 1983),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시장 거래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자원을 획득할 수 있거나(Starr & MacMillan, 1990), 지역사회에서 도움과 재무자원을 획득(Birley, 1985), 유통채널에의 접근, 정보획득, 혁신(Larson, 1991)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고, Johannisson(1986)는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자원을 소유하는것 보다 효과적인 자원 통제방법, 계약으로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의 접근, 정보나 자원뿐만 아니라 창업인의 활동의 정당성 제공, 잠재적 도움 원천에 대한 탐색, 기존의 네트워크와 신규 종업원의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역량(network competency) 형성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ubini & Aldrich, 1991).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Jarillo(1989), Zhao and Aram(1995)이 정의한 “창업인 또는 벤처기업이 외부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네트워크 활동은 신생기업이 가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외부의 개인이나 조직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창업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이들이 만든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신생조직의 형성이나 성과에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인들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규명하고, 시장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Starr & MacMillan, 1990).

이러한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주기도 하며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 새로운 고객 형성 등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Brush, 1992; Zhao & Aram, 1995; Ostgaard & Birley, 1996; Hansen, 1995).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이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살펴보면 기회특성, 창업인특성, 자원특성의 적합성으로 벤처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으며(Timmons et al., 1994) 외부자원의 활용의 효과성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부자원의 활용은 창업인이 인지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자원중에서 내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기회가 있을 때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자원과의 상승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창업인의 태도와 기회특성 및 벤처기업의 내부자원 능력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을 때 외부자원의 효과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설 1. 네트워크 활용도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 1. 1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 1. 2 각 네트워크 원천별로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기회, 창업인,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도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2.1 산업성장성이 클 때,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2 창업인이 창업가적일 때,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3 기술능력이 클 때,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2. 2 네트워크 활동 영향요인

벤처기업이 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원천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자원 제공자와의 관계는 과거경험 등에 의해 사전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도 하며 비공식적인 협력의 시험단계를 가진 후에 공식적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도 한다(Starr & MacMillan, 1990).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창업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인의 특성이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수준은 창업인의 기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세에 따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 창업가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창업인들은 보수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창업인에 비해 혁신적, 선용적, 위험감수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전직장과의 연관성이 낮은 산업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전직장과의 연관성이 클 경우에는 창업이전 직장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외부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다양한 매개를 이용하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외부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 이용할 수 있다(Schafer, 1990).

창업인의 사회적 활동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움을 주는 원천들이 자신들의 도움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느정도 안정적인 모험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원능력이 전무한

모험기업들이 외부도움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Eisenhardt & Schoonhoven, 199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창업인의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다.

3.1 창업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3.2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3.3 이전직장연관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벤처기업의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국내 벤처기업들 중에서 창업한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통제하여 연구표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창업 3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업의 생존여부의 불확실성과 성과변수의 부정확성,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어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연륜으로 통제하였다(Ostgaard & Birley, 1996).

본 연구의 표본프레임(Sample frame)은 기술집약적 모험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벤처기업협회(KOVA)의 회원명부(1995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회원명부(1995년), 그리고 정보전자산업업체총람(전자신문사, 1996년), 연구단지 연구원 출신업체들의 모임인 대덕21세기 모임 회원명부(1996년)에서 300개의 업체를 임의표본추출하였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996년 하반기에 우편설문과 방문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300개 업체 중에서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41개 업체(13.67%)는 우편으로 반송되었으며 76개(29.34%) 업체로부터 설문서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의 충실성과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창업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독립적인 벤처기업 55개업체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벤처기업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표본업체의 특성중에서 창업인의 창업당시 평균연령은 36.98세이며 종업원 평균 규모는 39.49명이다.

〈표 1〉 표본의 특성별 분포

(1) 산업별 표본 분포

	표본수	비율
전기/전자	21	38.2%
기계	6	10.9%
소프트웨어	25	45.5%
기타	3	5.5%
합계	55	100%

(2) 종업원 규모별 표본 분포

	표본수	비율
20명 이하	20	37.1%
21~40명	19	35.2%
41~60명	11	20.4%
61명 이상	5	9.3%
합계	55	100%

3. 2 주요변수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용도는 외부자원의 이용빈도(Frequency)로서 각 원천으로부터 외부자원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가를 의미하며 원천별 활용도는 각 원천들의 이용빈도 평균으로, 내용별 활용도는 내용들의 이용빈도 평균으로 측정하였다(Zhoa & Aram, 1995; Ostgaard & Birley, 1994, 1996).

벤처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미개척 수요의 정도와 시장의 증가여부를 이용하여 산업성장성을 측정하였다(Chandler & Hanks, 1994).

창업인 특성으로는 이전직장연관성은 창업이전 직장경험과 현업의 관련정도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값은 이전직장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Roure & Madique, 1986), 기업가정신은 창업인의 혁신지향성과 경쟁자에 대한 선용성 및 위협감수정도로 측정하였고 높은 값을 가질수록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Covin & Slevin, 1990), 교육수준은 창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최종학위로 측정하였다(조형래, 1995).

벤처기업의 기술능력으로는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유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는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에 관한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로 측정하였다(Ostgaard & Birley, 1996).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SAS를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서 회귀분석, t-test,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값 및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 및 상관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성과(단위: 백만원)	82.44	61.21	1.00				
2. 기업연륜	5.65	2.20	0.26*	1.00			
3. 산업성장성	3.24	1.09	-0.10	-0.13	1.00		
4. 기업가정신	4.83	0.90	0.06	0.07	0.06	1.00	
5. 기술능력	4.89	9.90	0.20	0.18	0.16	0.37***	1.00
6. 네트워크 활용도	2.09	0.61	0.34***	0.08	0.17	0.25*	0.30**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4. 1 네트워크 활동과 벤처기업의 성과 : 가설1~2 검증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3>의 모델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영향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회특성(산업성장성), 창업인의 기업가정신 수준과 벤처기업의 기술능력과 벤처기업의 성과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가설1.1에서 제시한것과 같이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도는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벤처기업의 성과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기업연륜	0.20	0.23*	0.18	0.26*
네트워크 활용도	0.34**	0.69	-0.41	0.36**
산업성장성	-0.14	0.21		
기업가정신	-0.07		-0.48	
기술능력	0.11			0.65
산업성장성* 네트워크 활용도		-0.53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활용도			0.97	
기술능력* 네트워크 활용도				-0.61
R ²	0.20	0.20	0.19	0.19
F-value	2.47**	3.10**	2.86**	2.86**

주) * : p<0.1, ** : p<0.05, *** : p<0.01

회귀분석에서 이용된 네트워크 활용도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평균적인 외부자원 활용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천으로부터의 도움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제시된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 표본을 두집단으로 나누고 이들간의 원천별 네트워크 활용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네트워크 원천 활용도 평균에 있어서 성과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원천유형으로는 사업관련(경쟁기업, 비경쟁기업, 공급자, 고객), 금융관련(은행, 창업투자회사)로부터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학 및 연구소, 정부부처로부터의 외부자원을 활용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과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5>에서는 벤처기업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내용에 관한 항목으로써 마케팅, 기술, 자금, 일반경영 등의 모든 분야에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에 기업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네트워크 원천별 활용도와 성과 분석

		높은 성과(n=28)	낮은 성과(n=27)	t-value
네트워크 활용도 평균		2.28	1.90	2.42**
원천별 활용도 평균	대학 및 연구소	2.16	1.76	1.53
	정부부처	1.84	1.65	0.89
	사업관련	2.57	2.16	2.08**
	금융관련	2.25	1.76	2.65**

주) * : p<0.1, ** : p<0.05, *** : p<0.01

〈표 5〉 네트워크 내용별 활용도와 성과 분석

		높은 성과(n=27)	낮은 성과(n=27)	t-value
네트워크 활용도 평균		2.37	1.89	2.73***
내용별 활용도 평균	마케팅	2.84	2.08	3.44***
	기술	2.23	1.83	2.13**
	자금	2.20	1.88	1.70*
	일반경영	2.34	1.73	2.40**

주) * : p<0.1, ** : p<0.05, *** : p<0.01

네트워크 활용도와 벤처기업의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에 관한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서 Moderated Regression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의 모델2~4에 나타나 있다.

산업성장성과 네트워크 활용도와의 상황적 관계를 제시한 가설2.1의 검증결과는 모델2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결과 상호작용변수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의 연륜만이 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창업인의 기업가정신 수준과 네트워크 활용도와의 상황적 관계를 제시한 가설2.2의 검증결과는 모델3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수들이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벤처기업의 기술능력과 네트워크 활용도와의 상황적 관계를 제시한 가설2.3의 검증결과는 모델4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설에서 제시한 상호작용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업연륜과 네트워크 활용도는 기업의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4. 2 네트워크 활동 영향요인 : 가설3~4 검증

네트워크 활용도와 영향요인간의 관계를 제시한 가설3~4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창업인의 특성과 네트워크 활용도간의 가설3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네트워크 활용도(가설3.1) 관계는 전체 네트워크 활용도와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업관련 원천으로부터의 네트워크 활용도와는 유의성이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네트워크 활용도(가설3.2)는 전체 네트워크 활용도에서 가설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의 외부자원 활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전직장연관성과 네트워크 활용도(가설3.3)는 전체 네트워크 활용도에 있어서 가설과 반대방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연구소,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 활용도에 있어서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네트워크 활용도 영향요인 상관관계 분석

	전체	대학/연구소	정부부처	사업관련	금융관련
연령	-0.19	-0.15	-0.10	0.20	-0.07
교육수준	0.22	0.13	0.14	0.30**	-0.03
기업가정신	0.25*	0.34**	0.22	0.09	0.16
직장연관성	-0.23*	-0.29**	-0.26*	-0.16	0.04
기술능력	0.30**	0.23*	0.24*	0.18	0.30**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한편 벤처기업의 기술능력과 네트워크 활용도(가설4)는 가설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연구소, 정부부처, 금융관련 네트워크 활용도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은 경우에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통제가능한 자원에 관계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높음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회특성, 창업인특성, 자원능력이 본 연구에서는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다양성과 벤처기업의 경우 재무적 성과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의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과영향요인과 재무적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움이 있다(Cooper & Gascon, 1992)

또한 네트워크 활용도와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가 연구결과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부자원의 활용도와 벤처기업이 직면한 특성만의 상황적 관계보다는 상황적 특성과 외부자원의 활용 및 이러한 외부자원을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변환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보다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행태적 특성의 중요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행태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을 각 원천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원천별 네트워크 활용도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별 활용도와 성과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지만 각 원천별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의 메커니즘,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창업인특성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기술능력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네트워크 활용도가 관련이 있음을 보였지만 이러한 외부자원의 활용에 있어서의 영향요인간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인과 벤처기업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창업초기에 내부자원의 부족은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어느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창업

인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창업인은 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기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정책인 측면에서는 특정자원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원 능력이 부족한 창업인이더라도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들이 포착한 기회를 과감히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형래, 창업인의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박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1995.
2. Birley, S., The role of networks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1985, pp.107~117.
3. Chandler G. N. and S. H. Hanks,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9, 1994 , pp.331~349.
4. Cooper, A. C. and F. J. Gimeno-Gascon, Entrepreneurs, Processing of Fo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Sexton, D. L. And J. D. Kasarda(ed.), Boston : PWS-KENT Publishing Co., 1992, pp.301~340.
5. Covin, J. G. and D. P. Slevin,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5, 1990, pp. 125~135.
6. Covin, J. G., and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Fall, 1991, pp.7~25.
7. Dubini, P. and Howard Aldrich, Personal and extended networks and central to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6, 1991, pp.305~313.
8. Eisenhardt, K. M. and C. B. Schoonhoven, Resource-based view of strategic alliance formation : strategic and social effects in entrepreneurial firms, *Organization Science*, Vol.7, No.2, 1996, pp.136~147.
9. Hansen, E. L., Entrepreneurial networks and new organization grow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um, 1995, pp.7~19.
10. Jarillo, J. Carlos, Entrepreneurship and Growth : the strategic use of external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4, 1989, pp.133~147.
11. Johannisson, B., Networking strategies : management technology for entrepreneurship and chang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5, No.1, 1986, pp.19~30.
12. Larson, Andrea, Partner network: leveraging external ties to improve entrepreneurial

-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6, 1991, pp.173~188.
13. Lumpkin, G. T. and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1996, pp.135~172.
 14. Ostgaard, T. A. and S. Birley, New venture growth and personal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Vol.36, 1996, pp.37~50.
 15. Ostgaard T. A. And S. Birley, Personal network and firm competitive strategies-a strategic or coincidental mat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9, 1994, pp.281~305
 16. Roure, J. B. And M. A. Maidique, Linking Prefunding Factors and High-Technology Venture Success : An Explorato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1986, pp.295~306.
 17. Schafer, D. S., Level of entrepreneurship and scanning source usage in very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win., 1990, pp.19~31.
 18. Stevenson, H. H. and D. E. Gumpert, The Heart of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85, pp.85~94.
 19. Stevenson, Howard H., M. J. Roberts, and H. I. Irving,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Illinois : Irwin, 1994.
 20. Starr, J. And I. C. MacMillan, Resource cooptation via social contracting : resource acquisition strategies for new vent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1, 1990, pp.79~92.
 21. Timmons, Jeffrey A., *New Venture Creation*, Irwin, 1994.
 22. Zahra, S. A.,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 A Critique and Extens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sum., 1993, pp.5~21.
 23. Zhao, L. And J. D. Aram, Networking and Growth of Young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0, 1995, pp. 349~370.